



2021학년도 제5차

군산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2021. 12. 22.(수)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사무국 재무과]

2021학년도 제5차

군산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1. 12. 22.(수) 10:00 ~ 12:00

2. 장 소 : 제1소회의실(대학본부 4층)

3. 회 순

1. 개회 2. 성원보고 3. 위원장 개회선언 4. 안건상정 5. 폐회

4. 참석현황

- 출석 위원(12명) : 박종규, 이신영, 강영숙, 주정훈, 염기성, 김종구, 양동재, 정현재, 김강주, 김준성, 백선거, 이희동 위원
- 불참 위원(3명) : 최동수, 박형준, 이인재 위원
- 참석 교직원(7명) : 조영(재무과장), 전지현(재무과 팀장), 김일지(재무과 주무관), 이호(재정효율화팀 부팀장), 조은미(학사관리과장), 정민(학사관리과 주무관), 오진섭(황룡인재교육원 전임연구원)

5. 상정안건

- 2021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6. 심의결과

○ 2021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 원안의결

7. 회의내용

- 사 회: 군산대학교 2021학년도 제5차 재정위원회 회의 성원 보고 (전지현)
- 위원장: 개회선언 및 안건 상정(의사봉 3타) (박종규) 「2021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의견 개진 요청
 - 1. 황룡인재교육원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사업 대응자금 5백만원 예산편성(안)
- 위원들: 동의함
- 위원장: 2. 학사관리과 비전임교원 시간강의료 보전 364,694천원 예산편성(안) (박종규) - 비전임교원 시간강의료 대학회계 2019~2020년 결산액은 약 5천만원 가량이었으나 2021년은 약 10 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임

- 학사관리과장 (조은미) - 강의로 부분에 대한 회의자료(2021 강의로 분석 및 개선방안) 설명
- 위원장: (박종규) 비전임교원 강의로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개진 요청
- 위 원: (염기성) - 비전임교원 강의로에 대해 교무회의나 학처장회의 등에 보고 필요
- 입학자원 부족으로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예정이고 시간 강의로까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학사관리과에서 단독으로 강의로 절감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어려움
-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학교 전체 재정의 어려운 상황에 따라 강의로 절감에 대한 심각성 및 학사관리과의 개선방안 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학내 구성원이 예산 절감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장: (박종규) 강의로 절감을 위해 수강학생 수는 적고 개설과목 수가 많으니, 1 과목을 듣는 학생 수가 많으면 되는 것. 개설과목 수를 축소하거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
- 학사관리과장 (조은미) 학제를 유지하면서 학생이 선택한 개설 교과목 제한은 어려움. 재학 인원 자체가 적은 학과가 있으므로 교과목 개설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함. 개설 교과목은 신설과 추가 위주로 발생하며 현재 학제로는 어려운 상황임
- 위 원: (양동재) 「(국고)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포플러 지표」에 의해 국가지원금 규모가 산정되고 대학회계 시간강의로 부담분이 결정되므로 지표에 의하여 강의로 통제가 필요함. 단과대학, 학과, 본부 차원에서 지표에 의해 통제하고 배분하는 것을 우선하여 진행하고 나머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함. 학과별 개설학점과 전체 개설학점이 얼마인지, 그 안에서 전임교원이 수업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함
- 학사관리과장 (조은미) 학과에서 협조해 주어야 함 (회의자료 p.60 전공별로 대학별, 학과별, 강사, 강의전담, 직급별 등 수업시수와 강의로 시수 통계 제시)
- 위 원: (양동재) - 학과마다 개설학점이 다르고 학생수도 상이함
- ①개설학점 통제, ②개설학점 안에서 전임교원의 담당 시간 제시 필요
문제 예) 음악과 개인레슨과목 57시간 증가(소수 외국인 대학원생의 강의 담당을 위해 1년에 9천만원 이상의 강사료가 증가함)

- 위 원: (양동재) -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포물러 지표」에 의해 국가지원금 배정 규모가 결정되므로 국가지표에 의한 톱다운(top-down) 관리로 학과별 통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별 대응은 의미가 없음
- 학사관리과장 (조은미) -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설명회 및 의견수렴 예정
- 수업운영 조치사항은 학사관리과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임
- 위 원: (강영숙) 비전임교원 강의료 절감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했음. 강의료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모두 인식하셨으니 학사관리과에서 단과대 설명회를 통해 자료에 제시한 개선방안을 교수님들께 정보 공유를 하고, 구성원 공감대를 형성하여 강의료 개선방안에 의해 절감될 수 있도록 재정위원회에서는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재정효율화팀 부팀장(이호) - 대학회계에서 시간강사료 10 억 원 부담은 심각한 상황임
- 2022학년부터 2가지 문제가 발생함. 첫째, 신입생 충원율 감소가 내년부터 누적되어 2배가 되므로 약 20 억 원 예산이 감소됨(신입생 충원율을 2021학년도 수준으로 낙관적으로 예측했을 경우의 예산임). 사업비 성 경비 70 억 원 중 우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20억 원 세입 ~~결손~~ 시 가용재원은 50 억 원임. 50 억 원 중 10 억 원은 정보 전산원 학내 전체 전산망 관련 사업비로 그동안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지원되었지만 2022학년도부터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대학회계에 편성되어야 할 필수 경비임. 이렇게 되면 2021학년도에 70 억 원이었던 사업성 경비가 2022학년도엔 40 억 원으로 감소됨
- 40 억 원 중에 시간강의료 인건비 10 억 원을 부담하게 되면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 주요사업비 예산 편성액이 반절로 줄어듦. 부서별 주요사업비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 만약 다른 추가재원이 없다면, 2022학년도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10 억 원의 시간강의료 재정 부담이 심각하므로 이것을 당장 절감하지 않으면 2022학년도부터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함
- 시간강의료 10 억 원 중 국가지원금 3 억 원 감소, 코딩강의 2 억 원, 음악과 개인레슨 1 억 원, 나머지 공유전공 확대에 따른 강사료 증가 등 잠재적인 여러 강의료 증가 사유가 발생함

○재정효율화팀
부팀장(이호)

- 결론은, 양동재 교수님 의견대로 학사관리과가 강사료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서이니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포물러 지표」 기준으로 단과대학이나 학과단위 지표를 마련해주고 통제해야 함.
수업의 포물러 지표를 각 학과에 주고 각 학과에서 포물러에 맞게 알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과가 그 포물러를 지키도록 학사관리과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함
- 학사관리과에서 포물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학과별 전임교원 담당 시간과 강사가 담당해야할 강의 시간의 수까지 제시를 해줘야 학과가 그 지표 안에서 절감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며, 기초교양 부분도 동시에 절감이 되어야 학과에서도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추가 제안을 드리면, 등록금 수입 감소 뿐만 아니라 시간강의료를 당장 절감하지 않으면 재정 상태가 심각함을 학교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 시간강의료 절감 실행을 위해 학사관리과 산하에 시간강의료 통제를 위한 TF 팀을 당장 구성하여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해야 함
(예, 코딩과목 등도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2022학년도 2학기에도 계속 진행되어 재정부담 가중)

○학사관리과장
(조은미)

- 즉시 순차적으로라도 강의료 증가 위험 요인들을 수정할 필요 있음
강사채용, 교과목 개설 등 계획을 세우는 부서(교무과, 황룡인재교육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어야 함. 학사관리과는 차후 진행 부서로서 한계가 있음. 이미 교과과정 편성이 마무리되었고 교과과정 정기개편은 끝났기에 수시개편이 필요하지만, 진행 과정상 당장 할 수 없고 학과 협조 필요함
재정효율화팀 이호 교수님과 학사관리과가 협력해서 재정부분과 강의료 부분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진행하면 교수님들께서 공감하는데 이해가 빠를 것임

○ 위 원:
(이신영)

폐강 유보 등 폐강기준 상향도 강의료 부담이 되니 강력하게 진행 요망


○ 위원장:
(박종규)


개선 방안 중 학과 학생수가 많지 않은 학과나 전임교원 강의 담당 +3 학점을 하게 되어 학과 전체내에서 과목수가 많아지면 수강인원 감소로 폐강되는 경우 전임교원이 책임시수를 못 채우게 되는 문제 발생 우려

- 학사관리과장 (조은미) 책임시수 부분은 비전임교원 강의를 전임교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권유, 전공보다 교양이 문제가 많음. 교양필수가 과다한 부분이 많아 교양은 별도 회의를 통해 선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분반 제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여 강의료를 4-5억 원이라도 절감하여 국가지원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학회계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함
- 위 원: (김강주) 학사관리과 재량으로 개선방안을 컨트롤 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빨리 진행해야 함
- 학사관리과장 (조은미)
 - 규정이나 지침 개정은 교무과나 황룡인재교육원에서 담당
 - 관련 부서에서 규정이나 지침 개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사관리과에서 강의료 관련 설명을 하고,
 - 관련부서에서 규정 등 개정 진행 시, 단과대학이나 학과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학사관리과와 재정효율화 부팀장님과 협업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수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위 원: (이신영) 교양필수과목 줄이도록 노력하고, 교양과목 신설 시 전임교원이 신설한 해 이후에도 그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함
- 위 원: (이신영) 사안이 급한 만큼 지금까지의 개선방안 논의를 재정위원회 권고안으로 제안 필요
- 위 원: (김강주) 재정위원회에서 현재의 강의료 시스템이 학교 재정부담과 관련된 사항임을 알려서 강의료 절감에 대한 개선방안이 정책적으로 수정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위 원: (강영숙) 재정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안이 시급한 만큼 학사관리과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 재정위원회 의견을 권고하여 공론화할 필요 있음
- 위 원: (주정훈) 향후 예산은 교육원가 계산을 통해 이뤄져야 함. 타대학들도 공유전공 확대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
강사료 부분은 학사관리과에서 절감안을 진행하면서 재정 부분은 교육원가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교수님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함
- 위 원: (염기성)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 강의료 절감에 대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함을 재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해 권고
- 위 원: (강영숙) 강의료 절감 개선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학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학사관리과 뿐만 아니라 재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권고

- 위 원: 학사관리과에서 제시한 개선방안(①2022학년도 수업운영 우선 조치 사항, ②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을 국가중심대 평균 수준으로 유지(+3학점) 필요, ③전공 개설학점 제한, ④강의 총량제 운영, ⑤교양 필수 교과목 축소, ⑥폐강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사관리과에서 시급히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위원장: 개선방안(①~⑥)이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을 의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들: 동의함
-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오늘 진행된 회의 내용과 재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기반으로 학사관리과는 단과대학 설명회 등을 통해 강사료 절감과 관련하여 교무과 등과 함께 조속히 정책부분을 진행
- 2021학년도 대학회계 제3차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다른 의견 물음.
2021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을 확정 하고자 함. 동의하십니까?
- 위원들: 동의함
- 위원장: - 2021~~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원안 대로 확정되었음을 선언 (의사봉 3타)
- 회의록 간(間)서명 대표 3명 : 강영숙, 염기성, 김강주위원
- 폐회 선언 (의사봉 3타)

작성일 : 2021. 12. 23.(목)

▷ 위 원 장 : 박 종 규 (서명) 

▷ 간 사 : 조 영 (서명) 

▷ 재정기획팀장 : 전 지 현 (서명) 

▷ 기 록 자 : 김 일 지 (서명) 